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467-476
<https://doi.org/10.29212/mh.2024..133.4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참관기] 한국군과 미군은 역사를 어떻게 기록·보존하는가

- 2024 한미 군사사 연구기관 세미나를 마치고 -

최정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한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전쟁을 통하여 문명은 성쇠를 거듭하였다. 군도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조직 개편과 무기체계를 개발하였다. 전쟁은 역사학자들에게 좋은 연구 주제가 되었고, 전쟁 연구는 단순히 군사력 운용과 관련된 전쟁사를 벗어나 군사 문제와 관계되는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이념 등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군사사(軍事史)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군사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에 있다. 즉 군사사 연구는 전쟁 관련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과거의 자료를 연구·분석 및 종합하여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는 해안과

창의성을 발현하게 한다.

군사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부대(부서)는 군사사 연구의 핵심 원천이 되는 전쟁 준비와 수행, 그리고 전후처리 과정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 전술 활동에 대한 가감(加減) 없는 기록(記錄)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다양한 출처(出處)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 관리·보존하는 활동을 통해 군사사 연구를 위한 도서관으로써 임무를 수행한다.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역사 속에서 굳건해진 동맹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양국 군의 군사사 연구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초부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주한미군 역사 기록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교차하여 부대를 방문하며 양국의 군사사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실로 2024년 11월 7일, 제1회 한미 군사사 연구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24명, 미군 측에서는 주한미군 역사실, 미 8군, 미 제7공군 등에서 5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주제는 “한미 양국의 군사사 연구기관 소개 및 교류·협력 방안”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사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간략하게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2. 한국군의 군사사 연구기관 소개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한 지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에 직면하였다. 6·25전쟁을 통해 국군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6·25전쟁 중에 국군은 전쟁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에 전사(戰史) 기록 관련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후 이 부서들은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기능과 역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세분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국방부 정훈국의 전사계(戰史係)로 출발한 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00년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평시에는 ①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편찬, ②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연구, ③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시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등에 파견되어 군사 자료수집, 전례 분석 및 전파, 전쟁 수행 및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 ① 국방사, 전쟁사 및 전투사 연구·편찬, ② 군사작전 및 민군 관련 사건 조사, 연구·편찬, ③ 국방부 장관이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지원 부서인 기획운영실, 문헌정보실과 연구부서인 국방사부, 전쟁사부, 군사사부, 조사연구부 등 2실 4부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창설 이후 총 873권의 단행본을 연

구·편찬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군사사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 학술지인 『군사(軍史)』지를 발간함으로써 군사사 연구 성과를 관련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보급,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사료 등 총 12만여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군사 자료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군사 종합연구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과는 1990년 10월 합동참모본부 창설 시 4본부 5실 체제의 하나인 군사연구실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군사연구과와 군사자료과로 편성되었으나, 1995년 4월 조직이 축소되어 군사연구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합참 군사연구과의 주요 임무는 ① 합참사 편찬, ② 합참지 발간, ③ 정책발전연구위원 운용, ④ 군사참고 발간 및 군사 학술용역연구 사업, ⑤ 전훈사료(戰訓史料) 수집, ⑥ 군사자료실 운용, ⑦ 특수기록관 운영, ⑧ 합참 역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합동참모의장 특별참모 역할을 한다.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육군 군사연구소는 창군 초기 전사 자료 수집, 발간, 전파와 외국 전사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1949년 12월 1일 육군편찬위원회로 설치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16년 4월 육군 군사연구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육군 군사연구소의 임무는 평시에는 육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쟁사를 연구·편찬하며, 전시에는 역사 기록 및 전쟁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있다. 수행하는 기능으로 ① 육군의 역사 기록 및 편찬, ② 국내외 전쟁사 연구 및 편찬, ③

육군의 군사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 보좌, 군사(軍史)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육군 군사연구소는 3개 과(課)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내 8개의 기관, 2개의 국외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군사연구』지를 발간하고 있다.

해군본부 직할부대인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은 1951년 해군본부 작전국에 전사과로 편제된 이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06년 1월 창설되었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주요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임무는 해군 기록물 수집·보존·폐기 및 해군 군사(軍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① 해군 역사·전사 편찬, ② 군사 업무 계획수립, 통제 및 부대 계보에 관한 업무, ③ 기록물 수집 및 평가·분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업무, ④ 해군박물관, 기념관(물), 역사관 및 전적 기념물에 관한 업무, ⑤ 기록물 매체 제작 및 보존, 인쇄·발간 지원에 관한 업무, ⑥ 해군 역사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참모총장 특별참모 업무를 수행한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은 해군본부 직할부대로 5개 과와 1개 보존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군 역사자료』 등 3만여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공군본부 직할부대인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1950년 10월 공군본부 비서실 정리과로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2006년 1월 창설되었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임무는 공군 역사 업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기능은 ① 공군 역사서 편찬, ② 공군 역사 연구, ③ 군사 자료수집 및 관리, ④ 군사재 관리, ⑤ 공군 역사 호국 인물 추모·현양 행사, ⑦ 공군 역사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참모총장 특별참모 업무를 수행한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9개 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군일지』 등 총 4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직할부대인 해병대 군사연구소는 1952년 정훈감실의 전사편찬과를 폐합하여 전사과로 개편한 이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10년 1월 창설되었다. 해병대 군사연구소의 임무는 해병대 군사 업무에 관한 계획, 군사 또는 군사 자료 수집·정리·편찬, 역사관(기념관)·전적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 유지 등 해병대 군사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수행, 해병대 역사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특별참모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① 군사 자료의 수집 분류 및 관리 운영, ② 해병대 정기역사 자료수집 발간, ③ 부대 계보 등 부대 역사 자료 유지 업무, ④ 군사 자료실 관리와 유지, ⑤ 해병대 역사관(기념관) 건립·관리 운영 및 조정·통제, ⑥ 해병대 전적 기념물 건립 및 관리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해병대 군사연구소는 군사/전쟁사팀 등 2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6·25전쟁 전투상보 등 총 1만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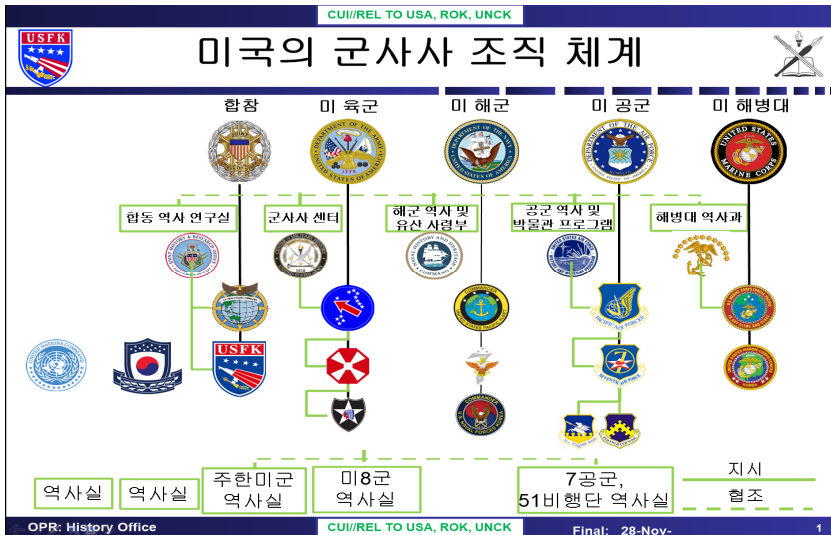
3. 미군의 군사사 연구기관 소개¹⁾

미군의 군사사 연구기관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는 합동역사연구실(Joint History and Research Office)이 있다. 이 연구실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같은 전투사령부의 역사학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며,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하위 통합사령부에도 지침

1) 주한미군의 군사사 연구기관 소개는 벤자민 해리스 주한미군 역사기록실장의 발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을 제공한다. 미군은 군별로 군사사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창설된 군종인 우주군은 현재 공군의 지침하에 공군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되지만, 차후에 독자적인 역사 연구 조직을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육군 군사사 센터(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는 모든 육군 역사학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대부분의 육군 군사박물관을 운영한다.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육군 군사사 센터가 모든 역사학자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육군 역사학자들이 따라야 할 규정 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군 역사와 박물관 프로그램, 해군 역사 및 유산 사령부, 해병대 역사과에도 같이 적용된다. 육군 군사사 센터가 규정을 수정하면 주요 지휘부는 이에 부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하위 부대들은 상위 부대의 지침을 근거로 수정한다. 육군은 역사학자 배치에 있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군사사 조직 체계

육군에서는 일부 주요 사령부와 4성급 본부에 역사학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모든 부대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교육사령부(TRADOC),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 미 육군 공병대 사령부에는 역사학자가 있지만, 육군 미래사령부에는 없다. 미8군의 기획참모부(G5) 차장은 역사학자 역할을 겸직하고 있으며, 미 제2사단은 약 25년 전에 역사학자 편제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막대한 역사를 잃고 있다.

육군 군사사 센터는 예비 장교와 부사관을 고용해, 이들이 본부에서 매월 2일 그리고 연간 2주 동안 역사학자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단급(2성급 사령부) 부대에서도 같이 적용된다. 여단급 이하 제대와 역사학자가 없는 부대에서는 부대원들이 역사학자의 임무를 겸직하고 있다. 육군 군사사 센터는 이들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은 각기 다르며, 이것은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해군과 해병대는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부대에 편성되어 있던 역사학자를 편제에서 삭제했다. 해군은 함정이 해상에서 작전 중일 때는 ‘덱 로그(Deg logs)’를 작성하여 활동을 기록하고, 비 함정 부대의 경우 ‘사령부 작전 보고서(Command Operations Reports)’를 수집한다. 해병대는 초급 장교에게 부대 역사를 작성하게 하고 있어 산물의 질은 부대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군은 육군과 해군보다 훨씬 양호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부대, 즉 비행단(대령급) 제대까지 역사학자가 배치되어 있다. 모든 부대에 보직이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군에 비해 훨씬 많은 역사학자가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마무리하며

현대사에서 한미 군사 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한국군의 역사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으며,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군사사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관계를 넘어서 그 범위와 영역이 확대되어 갈수록 군사사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군사사 연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이념 등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접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반도 전구에서 공동운명체로 나아가고 있는 한미 군사사 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이 역사 기록과 관리, 보존에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 군에서 군사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군의 역사 기록, 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미군 또한 역사기록과 보존 문제로 우리와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었다.

역사학자로서 혹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미 양측의 세미나 참석자들은 상호 간에 연락처를 교환하며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미 간에 공동 전적지 답사 프로그램 운용 등에 합의하고, 군사사 업무 추진 관련하여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 기록과 보존은 역사학자와 군사 업무 담당자들만의 업무가 아닐 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어떻게 변천됐으며, 어떤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작은 관심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첫걸음이다. 오늘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두면 미래의 후임자에게 소중한 역사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역사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하는 업무는 과거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현재 나의 업무는 미래로 연결하는 징검다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오늘 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기록을 남겨 역사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국방 현장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사 업무 담당자의 건투를 빈다.

영문제목 : 2024 ROK-US Joint Military History Seminar

영문저자명 : Choi, Jung-Joon